



### 조선대병원, 의료데이터 연구 심포지엄

조선대학교병원이 주최한 '2025 의료데이터 연구활성화 방안 및 협력모델 공유 심포지엄'이 최근 광주광역시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사진)

6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의료데이터 기반 연구활성화와 민관 협력모델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의료기관 관계자, 연구자, 산업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는 조선대병원 김진호 병원장과 고재웅 의생명연구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됐으며, 이어 보건 의료 빅데이터의 국가 전략 방향부터 실제 병원·기업 간 협력 사례까지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이어졌다.

행사에 참석한 김진호 조선대병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연구협력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국가의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병기 기자**



### 나주소방, '어린이 큰잔치'서 안전체험 운영

나주소방은 지난 3일 나주 빛가람동 호수공원에서 열린 '나주 어린이 큰잔치' 행사에서 '놀이와 체험으로 배우는 119안전체험장'을 운영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

이번 체험장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며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을 익힐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주요 체험 내용은 '소방관 복장 착용', '소화기 활용 화재진압 체험', '심폐소생술(CPR) 교육', '하임리히법 응급처치 교육', '소방차 모형 종이접기', '소방 캐릭터 키링 배부' 등이다.

특히 화재진압 체험은 실제 화재 현장을 연상시키는 환경에서 소화기를 직접 사용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돼, 어린이들이 실질적인 대응 요령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됐다.

신항식 나주소방서장은 "다양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해 시민의 안전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 GICON, 제2기 시민자문위원 위촉식 성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지난달 광주실감콘텐츠트뷰에서 '제2기 시민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정책·콘텐츠·디지털 3개 분과로 구성된 시민자문위원 24명을 공식 위촉했다고 최근 밝혔다. (사진)

시민자문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정보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관 활동과 주요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내 관련 현안들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됐다. 제2기 위원들은 2025년 진흥원 주요 사업과 관련해 자문회의와 기관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각 분과별 간담회를 통해 올해 운영 방향과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각 분과 실무 담당자들과 협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경주 진흥원장은 "정보문화산업의 올바른 방향 설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 광주조달청, '우리지역 파트너십데이' 개최

광주지방조달청은 지난달 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관내 전통 문화상품 기업과 수요기관을 연결하는 '우리지역 파트너십 데이'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사진)

우리지역 파트너십 데이는 2024년 처음 시작된 행사로, 지역 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기업과 수요기관을 직접 연결하여 실질적인 구매 상담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된 행사이다. 이날 행사는 광주·전남 지역의 전통문화상품(차잔, 국악기, 와인 등) 기업 5개사와 광주보훈청, 한국농어촌공사, 영암교육청 등 다양한 수요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조달기업과 수요기관 간 활발한 1대1 구매상담이 이뤄졌다.

김우환 청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파트너십 데이를 통해 지역 기업과 수요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 조선대, 신산업 분야 진로교육 교원연수

조선대학교 AI·SW교육센터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과 진로팀과 함께 '2025 신산업 분야(디지털기술) 진로교육 역량강화 교원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사진)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이번 연수는 조선대 조영주 담당교수와 컴퓨터공학과 원다훈, 최민혁, 조운성, 신수빈, 임찬형 학생 조교진이 교육을 맡았다.

연수는 신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와 교원, 교육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과 26일 이틀간 각각 4시간씩 총 2기로 나누어 운영됐다.

연수 내용은 △교원들의 신산업 분야 기술 및 직업 이해도 향상 △신산업 분야 중등 진로지도 역량 강화 △현장 적용 가능한 신산업 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설계·운영 역량 강화 등의 과정 등으로 구성됐다. **최동환 기자**



### 국민연금 광주본부, 조선대 취업 멘토링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지난달 조선대 행정복지학과 재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 바로알기 교육 및 취업 멘토링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행사로 국민연금 바로알기 특강을 통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 공단 채용제도에 대한 설명과 취업 멘토링 시간을 통해 최근에 입사한 직원들이 본인들이 직접 체험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발표하며 취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값진 시간을 제공했다.

설명전 광주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국민연금을 위해 노력하겠다. 공단 취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위해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약속했다. **나다운 기자**



### 광주 동부경찰, 'ACC 어린이축제' 범죄예방 부스 운영

광주 동부경찰은 지난 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주관한 '어린이 가족문화축제 하우편 11'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

자치경찰위원회와 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이 함께한 이날 부스에서는 아동·청소년 상대 범죄 예방을 위

한 각종 안내문이 배부됐고,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현장 지문 등록, 포토존 등 참여형 활동이 진행됐다.

김중호 동부경찰서장은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한 동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 고영국 광주소방본부장, 남부소방 청사 방문

#### 직원들 격려하는 시간 가져

고영국 광주소방본부장이 지난 2일 남부소방서를 방문해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6일 남부소방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제119현장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고영국 본부장은 남부소방 청사를 방문해 △주요업무와 당면 현안 논의

△다중응집장소 소방안전대책 등 긴급상황 시 유기적인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하고, 송하 119안전센터와 119구조대를 순회하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대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 본부장은 "시민의 안전 가장 가까이에서 계시는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무엇보다 대원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현장활동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준 기자**

### 박찬욱 "못난 사람 말고 국민 무서워하는 사람 뽑아야"

영화 '올드보이' '헤어질 결심'의 박찬욱 감독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와 관련 올바른 리더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박 감독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D홀에서 열린 '제61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 '전,란'으로 신철 작가와 각본상을 공동 수상하며 "이제 위대한 국민 수준에 어울리는 그런 리더를 뽑아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영화 속에서 차승원 씨가 연기했던 못되고 못난 선조, 그런 사람 말고 진짜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전,란'은 왜란이 일어난 혼란의 시대, 함께 자란 조선 최고 무신 집안의 아들 '종려' (박정민)와 그의 몸종 '천영' (강동원)이 '선조' (차승원)의 최측근 무관과 의병으로 적이 돼 다시 만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수상 무대에 오른 박 감독은 '전,란' 속 배경인 약 400년 전과 지금의 한국 상황이 비슷하다고 짚었다.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면 '전,란' 생각을 자주 했다. 큰 공통점이 있기 때문인데 용감하고 현명한 국민



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가.

그러면서 "( '전,란' 이 영화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크고 작은 민란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혼란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다. 그래서 '전쟁과 반란'을 줄여서 전란이라고 제목도 붙였다"고 부연했다.

박 감독은 '전,란'을 감독하지 않았다. 그가 연출하지 않은 영화로 각본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감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을 촉구하는 영화인 성명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제 21대 대통령 선거'는 오는 6월3일 치러진다. **뉴시스**